



3일 휴일을 맞아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대주건설 모델하우스에서 열린 4인조 여성 전지현악단 '코리'의 공연을 보고 있다. 이번 동시분양에는 대주건설, 코오롱건설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권 최대 신도시인 광주 수완지구의 동시분양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11개 건설사의 모델하우스에는 휴일을 맞아 '내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의 발걸음으로 대성황을 이뤘다.

3일 대주건설, 코오롱건설 등 수완지구 참여 11개 건설사에 따르면 개막 첫날 2만여명의 인파가 각 업체의 견본주택을 방문한데 이어 주말과 휴일인 2, 3일에도 각각 1만여명의 수요자가 개별 및 통합모델하우스를 찾았다.

특히 지난달 31일 동시분양 이후 각 업체의 모델하우스는 '예비 청약자'들이 대기 물려드는 등 140만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지구

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건설사들도 광산구 수완지구의 통합모델하우스와 서구 농성동 개별모델하우스 등에 각각 차별화된 견본주택을 열고 입지조건 홍보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체들

은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견본주택내에 카페테리아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자사 브랜드와 수완지구의 특장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주건설은 여성 4인조 전지현악단인 '코리'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앞세워 오픈 첫날 6천여명을 시작으로 2, 3일 각각 1만여명의 수요자가 견본주택을 찾았다. 현진도 지난달 31일 오전이 아닌 오후 2시에 오픈식을

가지면서 소비자들의 화의를 받을 만큼 '예비 청약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완지구 홍보대행업체인 유퍼스트 관계자는 "방문객들의 숫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업체별 계약률도 동반상승할 것이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완지구가 호남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호응도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시분양에는 대주건설이 '피오레'아파트 1천88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 ▲현진(1천181세대) ▲코오롱건설(753세대) ▲대방건설(707가구) ▲신안건설산업(579가구) ▲모아주택산업(570가구) ▲진흥기업(446가구) 등을 분양한다. 이어 ▲GS건설(433가구) ▲한양(432가구) ▲새한건설(364가구) ▲영무건설(179가구) 등 총 7천524세대가 분양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의 '명품 신도시'... 수완이 뜨겁다

11개 건설사 견본주택 '예비 청약자'들 연일 발길 북적



피오레 견본주택



피오레 거실



대방 노블랜드 거실



모아 엘가 주방



영무 에디움 침실



전흥 더블파크 거실

견본주택 고급화·차별화·명품화 아파트 새 트렌드 다 모였다

광주 수완지구 동시분양은 광주지역 최초의 통합모델하우스 운영을 통한 '분양방식의 진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동시분양 및 통합모델하우스 운영의 경우 한 자리에서 업체별 입지 여건이나 분양가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데다 업체간 트렌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모델하우스도 수시여원을 들여 아파트의 실제 거실과 똑같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고급화·차별화·명품화를 모색,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웅장한 외관과 개방감 강조=3일 수완지구 참여 건설사에 따르면 수완지구 아파트의 특징은 최근 트렌드인 '웅장한 외관'과 개방감을 강조한 '신평면 경쟁'으로 요약된다.

거실 바닥 대리석 장식

대주건설은 거실과 부부욕실 등에서 '피오레'아파트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거실의 경우 56평형의 거실 바닥을 대리석으로 장식하는 한편 벽체에는 각종 프레임과 문양 등을 세겨 웅장함과 화려함을 강조했다. 부부욕실은 세면기와 변기, 욕실 등을 분리하는 한편 드레스룸을 부부침실과 욕실 중간에 배치함으로써 수납공간을 크게 넓혔다.

현진에비빌은 아파트 현관 등을 호텔 로비와 같이 꾸미고, 거실이 넓어 보이도록 3면의 벽을 시원하게 개방시킨 설계를 선보였다. 또 최근 소비자의 성향을 반영해 밝은 색감의 마감재를 사용하는 한편 전 평형의 거실을 천연 대리석으로 시공했다.

3면 모두 조망권 확보

GS건설은 주방과 거실을 마주볼 수 있는 '대면형'으로 설계해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높이는데 주력했으며, 한양은 3면이 모두 조망권을 확보할 만큼 개방감을 크게 높이는 한편 개방형 발코니를 적용했다.

코오롱건설은 '오리엔탈 프리미엄'이란 브랜드 컨셉을 적용해 최고층의 펜트하우스(46, 75A평형)에 전통적인 인테리어를 도입했다. 주방과 거실을 벽 대신 창살 문양의 미닫이문으로 분리했으

며, 거실에는 대리석을 활용한 아트월 대신 병풍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모델하우스도 고급화·차별화=지난달 31일 수완지구 동시분양 이후 각 건설사의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의 시선은 광주 최초로 시도된 통합모델하우스로 쏠렸다.

통합모델하우스는 광산구 수완지구 현장에 1만5천평 규모로 들어섰으며, ▲대주건설 ▲대방건설 ▲모아주택 ▲새한건설 ▲신안건설 ▲영무건설 ▲한양 등이 각각 600~1천400여평의 다양한 견본주택을 선보였다.

에스컬레이터에 카페까지

대주건설은 연건평 1천400여평의 건물에 에스컬레이터와 카페테리아, 전망대 등을 갖춰 초대형 모델하우스에 걸맞는 시설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층 로비에 설치된 전망대의 경우 택지개발이 한창인 수완지구의 규모나 위치 등을 망원경을 통해 관람케함으로써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진도 서구 신세계백화점 인근에 연면적 1천200평의 초대형 견본주택을 선보였다. 현진은 3층 건물 내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고급 마감재와 인테리어를 통해 '호텔같은 아파트'를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코오롱건설은 연면적 1천여평의 건물에 내부와 외관의 마감재를 광목천과 흙 등 대부분 자연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절제된 동양미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GS 자이 주방과 거실



코오롱 하일채 주방



한양 수저인 거실



현진 에비빌 거실



신안 실크밸리 주방



새한 포유 거실